

새로 만든 수조 장식·크기 강조 기능 왜곡

수조(하)

예전에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수조는 분명한 용도가 있어 장소의 적합성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형태의 독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사찰에 설치되는 수조를 보면 장식성과 크기만을 강조할 뿐 뚜렷한 디자인적 특징이나 장소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키치(kitsch)적 경향을 보이는 것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수조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흉내 내거나 분위기를 살짝 바꾼 아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키치적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는 최근 설치된 수조 가운데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크기를 강조하여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이다. 사찰에 도입된 수조의 기능이 물을 담아두고 그 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음용수를 담기 위한 수조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찰의 본래적 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조자체의 크기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장식이나 내용물이 첨가되어 규모가 왜곡되는 경우도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장식성을 강조하여 수조가 가진 의미를 달리 해석하게 만드는 경우도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조와는 상관없는 조각을 도입하거나 지나치게 규모를 강조한 조형물을 덧붙여 수조가 가진 제 기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지난날 만들어진 수조의 형태나 조각 혹은 여러 개의 수조를 조합하는 방법 자체를 흉내낸 경우 역시 좋지 않은 사례이다. 특히 선암사 달마전 뒤뜰에 만들어놓은 삼탕을 흉내낸 경우가 많은데 선암사 삼탕은 그렇게 만들어진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장소에 만들어놓은 이러한 조합은 디자인적으로 오류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조형성을 발견할 수 없다.

여러 곳에 있던 수조를 옮겨와 전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수조가 형태적으로 특이하거나 수조에 새긴 조각이 훌륭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면 몰라도 다른 곳에 있던 수조를 모아서 전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수조에 연이나 수련을 심기 위해 절 마당에 다수의 수조를 늘어놓는 것 역시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절 마당은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곳이었었는데, 이러한 절마당이 가진 의미를 생각한다면 탑 주위에 수조를 진열하고 그곳에 꽃을 심는 것은 오히려 사찰경관의 진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수조에 담긴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수조의 물을 받아먹는 그릇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인데, 이 플라스틱 물그릇은 색깔도 그렇지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물론 지난날 사용하던 박으로 만든 바가지의 경우 구하기도 어렵고 깨지기도 쉬워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그릇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때가 꼬질꼬질하게



아무렇게나 놓인 물그릇은 불결한 이미지를 준다.

**전통 수조는 용도·형태 독창성 뚜렷
크기·불필요한 장식 사찰 경관 해쳐
물마시는 플라스틱 그릇 위생적
일본사찰 대나무·양은 그릇 사용**

문은 그릇을 보면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더구나 아무 곳에나 놔두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다. 일본사찰의 경우에는 나무나 대나무 혹은 양은으로 만든 물그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릇의 형태나 크기가 다양하고 정갈하게 관리하여 수조에 담긴 물을 마실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양은 물그릇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을 받을 때 나는 청량한 소리가 아름다운 사찰만들기의 한 요소가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찰의 수조에 담긴 물은 샘이나 개울에서 대나무 혹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조비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야말로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약수가 자연스럽게 수조에 담겨 항상 청결 넘쳐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찰이 대부분 깊은 산속에 위치하였으니 사찰마다 맛이 다르고 성분이 다른 물을 사시 사철 부족하지 않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산사의 물마저도 오염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더구나 천연적으로 형성된 샘물이 마르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기계장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수질도 문제가 되지만 물을 공급하는 것도 과거처럼 낭만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도꼭지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어 기계적이고 인공적이 되고 말았다. 물론 사찰에 따라서는 지하저수탱크에서 물을 공급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경관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탑주위에 수조를 진열하고 꽃을 심는것은 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불교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조각상을 도입하거나 조형물을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야 할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징적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석조 용도와는 상관 없이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은 다른 요소들과의 부조화를 낳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선암사 삼탕을 흉내낸 수조



기능·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지나친 장식성은 오히려 예술성을 저감하게 된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